

경제전문가 對 행정전문가 양자대결

■ 서구청장 신현구 vs 임우진

현직인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및 무소속 후보들과 본선에서 맞붙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누가 될까?

새정치민주연합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는 새정치연합 계의 신현구 후보와 민주계의 임우진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인다.

새정치연합계와 민주계 후보 간 1대1 대결이라는 점에서 양 진영의 세 대결도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자치 출범이후 줄곧 서구청장이 행정관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배심원들은 행정관료 VS 정치인 후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장 경선에서는 애초 7명의 예비후보들이 나섰다.

하지만 면접심사 등을 통해 5명이 고배를 마셨고, 신 후보와 임 후보 2명이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대 상대 출신인 신 후보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 정책연구위원(2

급 상당)을 지내는 등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해 경영 일선에 참여하는 등 벤처 창업 경험이 있는 만큼 창업 준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는 안철수의 진심캠프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정치연합에 합류했다.

신 후보는 “서구는 그동안 관료출신 청장들이 행정을 이끌어 오면서 무난하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진다는 평가 또한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이제는 관료보다는 정치력 있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안목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리더가

신, 중앙·지방정치 경험 풍부 안철수계

임, 광주시 부시장 역임한 ‘행정의 달인’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마륵동 탄약고 부지를 경제·문화중심구로 조성 ▲양동시장 브랜드화 사업 추진 ▲민생경제 자문회의 설치 ▲여성친화 특별구 조성 ▲찾아가는 힐링서비스 등 복지 서구 건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및 시민감사위원회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는 임우진 후보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임 후보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수원장 등 30여년 중

앙과 지방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지역 사정에 밝은 행정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민주당 광주 서구를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정치를 넘나들며 축적한 경험과 역량,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도 이번 경선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 후보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장여런 고뇌와 사회적 책임감으로 마지막 공천 문턱까지 오게 됐다”며 “서구 발전을 위한 최선, 최적의 후보임을 선거인단 또는 구민들이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그동안 공직을 수행하면

■ 새정치 광주서구청장 경선후보

		
이름(나이)	신현구(55)	임우진(62)
주요경력	• 전) 민주당 대표 특보 • 전)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 위원	• 전) 민주당 서구를 지역위원장 •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요공약	• 마륵동 탄약고부지 경제·문화 중심구 건설 • 해있는 서구 만들기 • 주민 참여 예산제 적극도입	• 제2서구 노인복지관건립 • 구민참여형 서구 장학재단 설립 • 구민 대화형 시대 실현

서 보여준 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람과 현안을 풀어 가는 역량과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시민들의 무한신뢰와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 행정, 살맛나는 서구’를 슬로건으로 내건 임 후보는 광주 1번지 명품 서구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 후보의 주요 공약은 ▲깨끗하고 열린 공직사회 구현 ▲구민 통합시대 실현 ▲양동시장, 전국 최고 전통시장으로 육성 ▲

생활밀착형 자원봉사문화 실현 ▲미래형 제2 서구노인복지관 건립 ▲상무소각장 부지 환경복합관으로 조성 ▲구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이다.

두 후보의 경선은 무소속 김종식 서구청장과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과 본선을 치러야하는 만큼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 청장에 지방의원 출신 도전 3파전

■ 남구청장 김만곤 vs 이철원 vs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경선은 김만곤·최영호·이철원 후보가 3파 대결을 펼친다.

남구청장 경선 후보도 애초 6명이 경합을 벌였지만, 면접 심사 등을 통해 3명이 탈락했다.

최 후보와 김 후보는 옛 민주계이며, 이 후보는 옛 새정치연합 계로 분류된다.

면접 심사서서 경합을 벌였던 6명의 후보 중 이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가 옛 새정치연합 계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만이 유일하게 새정치연합 계를 대표해서 경선에 올라왔다.

경선전은 재선에 도전하는 최영호 후보에 맞서 김만곤·이철원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형국이다.

최 후보와 이 후보는 광역의원을, 김 후보는 기초의원을 지낸 경험에 있는 지방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최 후보는 초선 구청장이었지만,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어느 정치인보다 약속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남구 숙원사업이었던 신정사 이전을 해결하는 특심도 보

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임기간 ‘이동하는 구청장실’을 120회나 운영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최 후보는 취임 당시 3곳에 불과했던 도서관을 53개로 늘렸고, 남구 공유재산을 14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증가시킨 점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그는 “경선에서는 신뢰의 가치로 정책(행정), 약속(정치), 사람(가치) 3가지 실천 운동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정책선거를 통한 행정신뢰, 약속정치를 통한 정치신뢰,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남구를 수준 높은 자치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는 ▲거점별 어르신 인생 이모작센터 2개소 추가 설립 ▲문화교육특구 종합지원센터 건립 ▲오카리나 음악도시 조성 ▲호남학진흥원 유치 ▲양광등 공예집적화 단지 조성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예너지 자금도시 조성 ▲양림·월산·사직·백운·방림·주월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후보는 “모든 공약은 남구 약속도시

김, 세무사 출신 지역경제 전문가 자임

이, 법률 상담 등 통해 바닥 민심 다져

최,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전국1위 달성

프로젝트와 ‘공약 알리미’ 제도를 통해 주민과 공감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의 기본 틀은 ‘주민 결정형 행정시스템’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선 김만곤 후보는 일찌감치 바닥민심을 훑고 다니는 등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남구, 구민이 구청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 후보는 재선 구의원을 지낸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세무사로서 지역경제 전문가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기초의원 10년 간 남구의회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백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유지와 양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조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김 후보는 “진짜배기 남구 ‘폴뿌리’ 정

치인이었던 저의 이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자리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민생과 실용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남구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야촌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능지역에 대한 개발 ▲자영업자·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육성 ▲민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공공성 강화 ▲대촌지역 하우스 원예채소와 소비자인 주민들간의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인간·문화가 중심이 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육성 ▲남구 재정 건전화와 남구청사 임대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변호사인 이철원 후보는 그동안 남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지역민들의 법

■ 새정치 광주 남구청장 경선후보

			
이름(나이)	김만곤(68)	이철원(57)	최영호(50)
주요경력	• 전) 남구의회 의원 • 세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전) 광주시의원	• 남구청장 • 전) 참여자치21 의원 포럼 대표
주요공약	• 주택재개발사업 성공추진 • 행복한 마을 공동체 육성 • 남구 재정 건전화	•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 • 영어마을 운영 • 구립 건강검진센터 설립	• 지역경제 순환센터 구축 • 영어전문도서관 설립 • 김치산업클러스터 조성

률상담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왔다.

광주시의원을 지내기도 한 이 후보는 “남구발전을 위해 준비돼 있다”며 “남구 경제발전과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배심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그는 구립건강검진센터를 신청서에 설립·운영을 통해 청사 임대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소와 연계된 의료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민의 의료복지 향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대촌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나주혁신도시와 연계된 도시발전과 남구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영어마을 운영과 수학·과학 마을을 만들어 교육 남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3명의 후보들은 100%로 공론조사(배심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정권발표와 토론회 준비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NAVER광주 소리큐

광고실의월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soriQ

소리큐보청기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 · 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정선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홍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男 초 혼

女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번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번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 혼

의사, 변호사	32~65세	男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女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서석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